

#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수준이 사회적 자본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진이\*,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ocial Capital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Jin-Yi Han\*, Wang-Kyu Lim\*\*

Dept. of Elderly Welfare,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hD\*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 사회적 자본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천지역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90부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실현(독립변수)이 사회적 신뢰(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자아실현(독립변수)이 사회적 참여(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그러나 사회적활동(독립변수)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활동지원과 관련된 정책 제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 사회적 자본, 융복합,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elderly on the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social capital.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research of 390 older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on the volunteer programs run by welfare center and culture center for the elderly at Incheon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realization (independent variables) have effect on social trust(dependent variable). Second, self-realization(independent variable) has effect on social participation(dependent variable). Third, but social activity(independent variables) have not effect on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can be use to propose policies related to the social activity for the elder's good life.

**Key Words** :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Social Capital, Convergence, Social trust, Social Participation

Received 2 April 2015, Revised 7 May 2015

Accepted 20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Wang-Kyu Lim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Email: wklim@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그로부터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

이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미흡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 노년기의 무위와 무료,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처 인구고령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관련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관련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0%로 가장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43]. 노인들의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에 80.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44].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은 여러 선행연구들[3,4,5]에서 밝혀졌듯이 은퇴이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역할상실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Havighurst, R. J.(1968)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그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6,7]에서 주장한 것처럼 은퇴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노인일자리 참여 등 보람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할 경우 노후에도 역할이 계속 주어지고 그로인해 상당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은퇴이후 여러 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은 오늘날 사회참여의 많은 형태 가운데 대표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항상 복지자원의 부족을 경험해 왔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8].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참여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 구축으로 이어져 고독감 해소 등 여러 노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 자원봉사 참여가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연구하려는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노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존재로 보고 접근하여,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여 연구 되어졌다[9].

그러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6].

이러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 자원봉사 참여와 참여노인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등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0,11].

둘째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개 사회적 자본이 독립변수나 매개변수가 되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 삶의 질,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등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12,13].

셋째는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14,15]. 이와는 반대로 일부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8].

본 연구는 노인자원봉사의 참여시간이나 참여경로 파악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유형화하고, 참여동기의 수준과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은퇴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미리 준비하는 정책과제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노인자원봉사

#### 2.1.1 노인자원봉사의 개념정의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제3조의 1)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의 3에서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여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평생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를 지도하고 공익사업에 유효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는 수혜대상자였던 노인들을 복지의 제공자로 전환해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16].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주체인 노인의 자기성장이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노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심리적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노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퇴직 후의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17].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자원봉사란 노인이 평생 동안 축적하여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여가생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1.2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의 2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과 자발성의 특성은 결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중요성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 경영학을 기반으로 최근 사회복지학에서도 동기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8].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인구 고령화 대처방안의 하나다.

선진국에서 고령화사회 대처방안으로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거나 일하기를 원치 않는 노인에게는 일생을 통해 연마해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참여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과제이고 이는 한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19].

이러한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다양하며 여러 학자들이

세부적인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Bramwell(1994)은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애타심, 자기 성취, 사회적인 것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20]. Clary et al.(1998)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경력동기, 사회성동기, 가치동기, 강화동기, 보호성동기, 이해동기 등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21]. 김창석·최수일(2012)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고 이를 지각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요인으로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감, 개인성취가 있다고 하였다[22].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 맥클랜드(McCelleand)의 성취동기 이론, 헤르츠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 요인이론(motivation hygiene theory),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 다니엘 핑크(Danielpink)의 Motivation 3.0이론, Moore의 동기이론, Francies(1982)의 자원봉사 동기-욕구 프로필 이론 등이 있다[22,23].

이중혜(2001)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보상적 동기, 관계적 동기, 대의적 동기로 구분하여, 보상적 동기는 자신의 경험을 살리고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이며, 관계적 동기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이나 대인관계를 넓히려는 동기이고, 대의적 동기는 종교적, 사회적 관심에 의한 동기로 정의하였다. 이 중 보상적 동기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관계적 동기나 대의적 동기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4].

길귀숙(2004)은 자원봉사 동기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의 제공과 이를 지속시킬 힘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동기부여 방법으로 제도적인 동기부여 방법과 자발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제안하고, 자원봉사 참여 동기 유형을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성취감, 격려 및 시상에 대한 기대, 조직향상의 노력이라고 하였다[25].

이러한 선행연구의 여러 참여동기 유형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를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감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 2.2 사회적 자본

### 2.2.1 사회적 자본의 개념정의

성숙한 선진 사회의 조건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 자본 개념은 민주주의, 경제 성장, 교육, 복지, 시민사회, 공동체,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으로서 여러 영역의 학자들 뿐 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에게까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 발전 특히 경제적 발전과 관련하여 물질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과 효율적 활용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물질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활용,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26].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Bourdieu(1996)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자본의 형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물질적 자본 이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정에 의해서 체화되고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도 불평등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결합체라고 정의한다[27].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socialcapital)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써, 사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고 하였다[28].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촉진시키는 자본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9].

Nahapiet·Ghoshal(1998)은 사회적자본을 한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지니고 있는 연계로부터 도출되거나 배태되어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30]. Tsai·Ghoshal(1998) 역시 사회적 자본이 자원

의 교환 및 결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31].

민진암(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연구의 대상이 스스로의 노후대책과 정부의 대책도 미흡하여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노인에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호혜성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2].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데, 공통점은 전통적인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의 개념과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새로운 자본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 2.2.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법과 관점이 연구자들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도 연구자들에 따라 제시되는 내용들이 매우 다양하다.

국외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를 고찰해보면, Putnam(1995)은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유기체의 형태를 띠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조직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다[28].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27]. 또한 개념을 확장하고 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던 Coleman(1988)은 관계망, 신뢰,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29]. Woolcock(199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bonding(결속형), bridging(가교형), linking(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속형은 개별 집단 내에서, 가교형은 집단 간, 연계형은 국가 간 차원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흔히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 정치,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보의 교환 및 유대감, 통제를 통해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그는 '신뢰'를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일컬었다[33].

국내 연구자들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 요소들을 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규범, 가족 신뢰, 동료 신뢰, 이웃 신뢰, 사회 참여, 정치 참여,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 가운데 신뢰나 네트워크, 규범과 같이 두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 위주로 이해되거나, 연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구성요소와 표현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민진암(2013)과 임중철(2014)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써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호혜적 규범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32,34]. 정순돌·성민현(2012)은 각각의 연령 집단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35].

장유미(2011)는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되고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의 삶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하여 살펴보았다[7]. 문영주(2011)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조적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성을, 인지적 차원에서는 비전 설정 및 공유를, 관계적 차원에서는 호혜적 규범, 신뢰 및 협력으로 구분하였다[36].

이와 같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특성과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단순화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 2.3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와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설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와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은퇴 노인의 역할상실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은퇴노인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은퇴한 노인도 은퇴 이후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이론적 기초가 되는 일반이론은 노년기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적 역할로서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노년기의 생활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Havighurst, R. J.(1968)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다.

이러한 활동이론은 Havighurst 등 의해 처음 주장된

후 Lemon 등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생물학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 때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 노년기에 여전히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중년기 또는 노년기 등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직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봉사활동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중년기 이후의 활동수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노년기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노인의 행복감은 노년기 이전의 상실 혹은 감소된 역할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6].

김영옥·권해수(2011)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는 사회참여이고 사회참여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 조직적 요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제로 연구되었다[8].

자원봉사활동의 하위변인은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은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대인신뢰, 기관신뢰로 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인 대인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영숙·이영민(2011)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의 연구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하위종속변인인 신뢰는 응답자 자신의 계층에 관한 수준인식,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네트워크 변인은 직업유무와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규범형성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자(2012)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봉사

만족이 청소년의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규범과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 요소 중에서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사회적 연계망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만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낮은 집단 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인정과 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38].

남은영·이재열·김민혜(2012)는 사회자본과 사회공헌형 여가로 분류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공헌형 여가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개인적 흥미와 관심의 추구를 통하여 행복감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자본의 축적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39].

김명숙·고종욱(2011)은 자본 및 생태환경 요인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변수를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공식적 상호작용이라는 두변수로 나누고, 사회적 자본 요인들 중에서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식적 상호작용은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의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2].

이현기(2010)는 많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연구가 사회적 자본을 다른 자본 변수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변수로만 취급하는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독립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효과를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4].

사회적 자본이 공식적 상호작용, 즉 사회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의 맥락에서 노인자원봉사를 촉진한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김성경(2009)은 사회적 자본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요인인 타 자원봉사자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민간·자선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요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5].

양은서(2014)의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과 지역 사회 내 사회자본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첫째,

종속변인인 사회자본 형성의 하위요인인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형성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학년, 자원봉사 횟수,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대상자의 네트워크 형성은 자원봉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원봉사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 형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에 부적인 영향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받고,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규범 형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0].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Havighurst, R. J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은 참여노인의 사회적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사회적 활동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아실현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은 참여노인의 사회적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사회적 책임감은 사회적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사회적 활동은 사회적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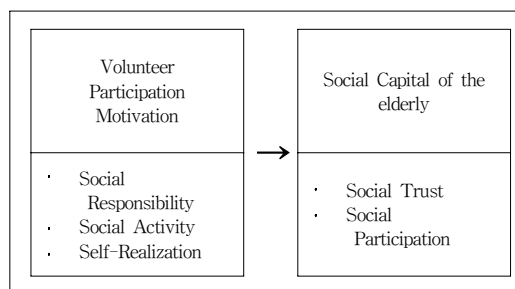
H-2.3 자아실현은 사회적 참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의

지표로서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활동, 자아실현을 하위변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세부요인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하였듯이 사회적 신뢰, 사회적 참여를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중인 노인 400명을 비확률표집 방법 중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30일간(2015. 1. 28 ~ 2015. 2. 28)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400부였으며, 이중 결측 값이 있는 10부를 제외한 39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파악하였고, 두 번째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은 카이제 규칙이 있는 직각 회전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노인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 3.3 변수의 측정도구

#### 3.3.1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은 김창석(2011)의 연구[41]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감’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SCR1”,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SCR2”, “자원봉사활동으로 더 행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SCR3”의 3문항, ‘사회적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SA1”, “자원봉사활동은 나의 사회적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이다 - SA2”,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 SA3”, “자원봉사활동은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이다 - SA4”의 4문항, ‘자아실현’은 “자원봉사활동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SR-1”,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SR-2”,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 SR-3”, “자원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SR-4”, “자원봉사활동은 내 인격수양에 도움이 된다 - SR-5”의 5문항, 총 12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3.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는 임중철(2014)의 연구[34]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배우자를 신뢰하십니까? -ST1”, “친구를 신뢰하십니까? -ST2”, “친척을 신뢰하십니까? -ST3”,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ST4”, 총 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장유미(2011)의 연구[42]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축제, 음악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1”, “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2”, “종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3”, “향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4”,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5”,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SP6”, 총 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3.3 참여노인 만족도

‘참여노인 만족도’는 김창석(2011)의 연구[41]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PS1”,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낀다 - PS2”, “자원봉사활동이 내게 도움이 되어서 만족한다 - PS3”, “자원봉사활동이 내게 좋은 경험이어서 만족한다 - PS4”,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어서 만족한다 - PS5”, 총 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4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이 0.9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확률이  $p < 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able 1>에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이겐 값(고유치)이 1보다 큰 요인이 5개 추출되었고 요인모델의 총 설명변량은 69.708%로 나타났고,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 3.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항목분석 방법 중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3.6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중



〈Table 1〉 Factor Analysis

	Factor				
	SR	SP	SA	ST	SCR
SR-4	.806	.148	.248	.020	.151
SR-1	.741	.095	.261	.079	.236
SR-2	.730	.118	.263	.072	.217
SR-3	.712	.054	.422	.064	.145
SR-5	.703	.117	.287	.135	.161
SP-4	-.021	.856	.067	.125	.155
SP-3	-.006	.821	.014	.178	.092
SP-2	.161	.739	-.072	.037	.107
SP-1	.365	.669	-.088	-.036	.164
SP-6	.353	.642	.153	.055	-.100
SP-5	-.108	.628	.190	.199	-.104
SA-3	.280	.057	.839	.047	.195
SA-2	.373	.059	.781	.083	.247
SA-4	.382	.056	.773	.121	.160
SA-1	.320	.022	.722	.094	.263
ST-2	.044	.045	.125	.855	.001
ST-1	-.054	-.009	.052	.745	.237
ST-3	.211	.362	.052	.704	.069
ST-4	.203	.440	.044	.660	.044
SCR-1	.243	.098	.188	.086	.818
SCR-2	.233	.116	.277	.167	.812
SCR-4	.262	.063	.331	.115	.670
Eigen Value	3.766	3.632	3.214	2.426	2.299
% of Variance	17.117	16.507	14.608	11.026	10.450
Cumulative %	17.117	33.624	48.232	59.258	69.708

KMO Measure=0.896  
 Barlett x2= 5162.431 , df = 231 p=0.000  
 \*p<.05, \*\*p<.01, \*\*\*p<.001

PS: Participation Satisfaction, SP: Social Participation,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ST: Social Trust, SCR: SoCial Responsibility

교, 주거상태, 직업, 월소득, 자원봉사활동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와 같이 남성이 162명(41.5%), 여성이 228명(58.5%)이었고, 연령은 60세~64세가 39명(10.0%), 65세~69세가 106명(27.2%), 70세~79세가 195명(50.0%), 80세 이상이 50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Social Responsibility)	.846
	SA(Social Activity)	.915
	SR(Self-Realization)	.892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ST(Social Trust)	.792
	SP(Social Participation)	.835

## 4. 연구결과 및 논의

### 4.1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봉사 참여동기(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활동, 자아실현)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Model I은 <Table 3>과 같이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학력과 주거(영구 임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8.6%였다.

Model I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

봉사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사회적 책임감( $\beta = .213, t = 3.439, p < .01$ ), 자아실현( $\beta = .180, t = 2.621, p < .01$ )이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실현 두 개의 요인 중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동기 중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였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2$ 은 18.8%였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Gender	M	162(41.5)
	F	228(58.5)
Age	60-64	39(10.0)
	65-69	106(27.2)
	70-79	195(50.0)
	> 80	50(12.8)
Education	No Schooling	3(.8)
	Elementary	69(17.7)
	Middle	117(30.0)
	High	157(40.3)
	University Graduate	32(8.2)
Religion	Y	275(70.5)
	N	115(29.5)
House	Owner	294(75.4)
	Rent(by year)	58(14.9)
	Rent(by month)	14(3.6)
	Rent(permanent)	5(1.3)
	etc	19(4.9)
Occupation	Y	67(17.2)
	N	323(82.8)
Salary per month	<₩ 100M	199(51.0)
	₩100-150M	103(26.4)
	₩150-200M	44(11.3)
	₩200-250M	22(5.6)
	₩250-300M	13(3.3)
	> ₩ 300M	9(2.3)
Duration of volunteer	< 1 year	76(19.5)
	1-2 years	115(29.5)
	3-4 years	97(24.9)
	> 5years	102(26.2)

#### 4.2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연령, 학력과 활동기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2$ 은 8.8%였다.

Model II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아실현( $\beta = .263, t = 3.750, p < .001$ )이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활동 두 개의 요인은 사회적 참여와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였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2$ 은 14.9%였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노인 자원봉사 참여동기 수준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봉사 참여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동기 중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실현 동기수준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아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배우자, 친구, 이웃 등을 신뢰하는 즉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사회적 활동 동기와 사회적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신뢰가 상대를 믿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자아실현과는 다른 단순히 사회적 활동을 위한 동기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동기 중 자아실현 동기수준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노인의 자아실현 동기가 높을수록 참여노인이 지역사회단체 행사나 반사회, 향우회, 동창회, 시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4)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ocial Trust

IV	Model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constant)	2.873		9.843***	1.625		4.89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sup>1)</sup>	-.017	-.010	-.197	-.056	-.034	-.679
	Age	.053	.054	.973	.021	.022	.409
	Education	.145	.178	<b>3.131**</b>	.085	.105	1.866
	Religion <sup>2)</sup>	-.079	-.044	-.865	.014	.008	.161
	House <sup>3)</sup>						
	House 1	-.207	-.091	-1.792	-.159	-.070	-1.440
	House 2	-.156	-.036	-.717	-.046	-.011	-.221
	House 3	-1.340	-.186	<b>-3.731**</b>	-1.319	-.183	-3.865
	House 4	-.110	-.029	-.582	-.109	-.029	-.607
	Occupation <sup>4)</sup>	-.068	-.032	-.605	-.128	-.060	-1.202
Salary	-.024	-.036	-.673	-.004	-.005	-.106	
Duration	.065	.087	1.684	.020	.026	.525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				.235	.213	<b>3.439**</b>
	SA				-.006	-.006	-.085
	SR				.187	.180	<b>2.621**</b>
F		<b>3.244***</b>			<b>6.206***</b>		
R <sup>2</sup>		.086			0.188		
$\Delta R^2$					0.102		

\*P<.05, \*\*P<.01, \*\*\*P<.001, 1) Gender(M=0, F=1), 2) Religion(Y=0, N=1), 3) House(Owner =0), House 1(Rent by year=1), House 2(Rent by month=1), House 3(Rent permanent=1), House 4(etc=1), 4) Occupation(Y=1, N=1)

(Table 5)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n Social Activity

IV	Model	Model I			Model II		
		B	$\beta$	t	B	$\beta$	t
	(constant)	1.790		<b>5.391***</b>	.830		<b>2.144*</b>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sup>1)</sup>	-.078	-.042	-.786	-.095	-.051	-.982
	Age	.151	.135	<b>2.449*</b>	.142	.127	<b>2.338*</b>
	Education	.108	.117	<b>2.052*</b>	.082	.089	1.552
	Religion <sup>2)</sup>	-.192	-.095	-1.854	-.104	-.051	-1.015
	House <sup>3)</sup>						
	House 1	.096	.037	.731	.122	.047	.953
	House 2	-.344	-.069	-1.385	-.278	-.056	-1.151
	House 3	-.253	-.031	-.619	-.273	-.033	-.686
	House 4	-.057	-.013	-.264	-.050	-.012	-.240
	Occupation <sup>4)</sup>	.053	.022	.417	-.005	-.002	-.043
Salary	-.020	-.027	-.505	-.006	-.008	-.161	
Duration	.150	.175	<b>3.390**</b>	.106	.124	<b>2.433*</b>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SCR				.123	.098	1.544
	SA				-.129	-.107	-1.501
	SR				.312	.263	<b>3.750***</b>
F		<b>3.333***</b>			<b>4.705***</b>		
R <sup>2</sup>		.088			0.149		
$\Delta R^2$					0.061		

SCR= SoCial Responsibility,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P<.05, \*\*P<.01, \*\*\*P<.001

1) Gender(M=0, F=1), 2) Religion(Y=0, N=1), 3) House(Owner =0), House 1(Rent by year=1), House 2(Rent by month=1), House 3(Rent permanent=1), House 4(etc=1), 4) Occupation(Y=1, N=1)

SCR= SoCial Responsibility, SA= Social Activity, SR= Self-Realization

넷째,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활동 두 개의 동기요인은 사회적 참여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 중 김영옥·권해수[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영옥·권해수의 연구에서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인 대인신뢰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밝혀져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나타났다.

권영숙·이영민(2012)의 연구결과[3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동 연구에서 하위 종속변인인 신뢰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은영·이재열·김민혜(2012)의 연구결과[39]에서도 사회공헌형 여가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시민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도 기여한다고 밝힘으로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를 중시하여 참여동기와 참여노인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힌 점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은퇴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사회활동 지원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과 노인빈곤율 증가, 노인자살율 증가 등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현재 한국 전쟁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고학력에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가진 고급인력을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번째는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향후 전국에 분포된 노인자원봉사자 표본에 대한 설문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영역별로 표본을 분류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번째는 노인자원봉사 참여동기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들은 선행연구결과와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의 한계로 참여동기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자본에서는 2개의 하위요인 밖에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하위요인을 활용하여 변수간의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Bureau of Statistics,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2010-2060), Bureau of Statistics, 2011.
- [2] M. S. Kim · J. W. Ko, "The Effects of Capital and Ecological Variables on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237-248, 2014.
- [3] H. N. Kwon, "Ethical reflection on lonely death problem of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35, pp. 245-277, 2013.
- [4] J. C. Noh · Z. K. Ko,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upport Polices and Legal Improvement Devices for the Aged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 pp. 257-268, 2013.
- [5] Y. S. Kwon · K. S. Paek,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in the Elderly in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2, pp. 587-594, 2014.
- [6] M. H. Kim · J. K. Jung, "An Empirical Study of Elderly Volunteering Commitment and Their Life Satisfaction Based on Activity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4, pp. 221-243, 2003.
- [7] Y. M. Jang,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from Participa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2, pp. 261-289, 2011.
- [8] Y. O. Kim · H. S. Kwon, "The Effects of Voluntar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Vol. 18, No. 2, pp. 103-129, 2011.

- [9] S. H. Choi · S. H. Song,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9-59, 2014.
- [10] S. D. Chung · E. J. Lee, "The Effects of Volunteering Characteristic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direct contact and indirect contac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4, pp. 219-233, 2005.
- [11] J. R. Han, "The Effects of Senior Professional Volunteering : With a Focus 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roject Supporting Senior Professional Volunteer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43, pp. 127-148, 2015.
- [12] D. G. Kim · D. C. Kim,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Activ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Human Services: Focusing on Mediator of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8, No. 1, pp. 243-265, 2014.
- [13] J. W. Han · H. Y. Woo · E. S. Ju · S. H. Lim · S. Han, "Effects of Nurses' Social Capital on Turnover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No. 4, pp. 35-44, 2014.
- [14] H. K. Lee, "Old-Age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s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Vol. 50, pp. 263-290, 2010.
- [15] S. K. Kim, "The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Volunteer Context on Above-average Participation in Volunteerism",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1, No. 3, pp. 317-337, 2009.
- [16] J. S. Hur, "A Study on Self-Efficacy among the Elderly Persons: National Senior Public Work and Senior Volunteer Activitie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4, pp. 89-128, 2011.
- [17] S. S. Cho, "Measures to Revitalize Senior Volunteering Programs for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Resource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8, No. 1, pp. 307-332, 2009.
- [18] K. H.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Volunteer and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Mediating Effect of Motive Fulfillment",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7, No. 1, pp. 65-89, 2015.
- [19] Sung-Jae Choi · In-Hub Chang,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Aging Society", pp. 294-295.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
- [20] Bramwell, R. D., "Seniors as a volunteers and their training",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Vol. 12, pp. 47-57, 1994.
- [21]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Copeland, J., Stukas, A., and Haugen, M.,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No. 6, pp. 1516-1530, 1998.
- [22] C. S. Kim · S. I. Choi, "The Relations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15-326, 2012.
- [23] Jin-Seok Yang, "A Study In the Infouences of Motives upon Voluntary Public Service of Old People", MA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02.
- [24] Jong-Hae Lee,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Volunteers of Consumer Interest Group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 [25] G. S. Kil,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Motivation Factors on Volunteer Activ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Vol. 11, pp. 99-121, 2004.
- [26] Y. R. Hong · Y. H. Cho · H. B. Park · J. H. Yang · T. J. Kim · Y. H. Cho · H. B. Park · J. H. Yang, "Educational Strategies to Form Social Capital for

- National Develop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p. 88-93, 2006.
- [27] Pierre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pp. 248-249, 1996.
- [28] Robert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 13, pp. 35-42, 1993.
- [29]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4-121, 1988.
- [30] Nahapiet, J. &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2, pp. 242-266, 1998.
- [31] Tsai, W. & S. Ghoshal,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1, No. 4, pp. 464-476, 1998.
- [32] Jin-Am Min, “The Effects of the Empower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me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Ph. D.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2013.
- [33]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 27, No. 2., pp. 151-208, 1998.
- [34] Joong-Cheol Lim, “The Effects of Economic Activities Participants’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on the Quality of lif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2014.
- [35] S. D. Chung · M. H. Su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4, pp. 249-272, 2012.
- [36] Y. J. Moon,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Capital Scale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3, pp. 381-407, 2011.
- [37] Y. S. Kwon, · Y. M. Lee,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Volunteers’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Vol. 25, No. 1, pp. 137-156, 2011.
- [38] J. J. Woo, “A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tion and Reward for Youth Volunteers on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The Moderating Effect of Volunteer Satisfac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335-363, 2012.
- [39] E. Y. Nam · J. Y. Yee · M. H. Kim, “Do Leisure Activities Make People Happier?: The Role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Leisur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No. 5, pp. 1-33, 2012.
- [40] Eun-Seo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s’ Club Activiti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y”, MA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4.
- [41] Chang-Sug Kim,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2011.
- [42] Yu-Mi Jang,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from Participa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s”, Ph. D.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2011.
- [43] Yonhap: <http://www.yonhapnews.co.kr/dev/html>, 2015. 01. 21.
- [44] Kyunghyang: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 artid. 2013.01.29.

### 한 진 이(Han, Jin Yi)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박사과정) 노인복지학과
- 관심분야 : 시니어산업, 시니어헬스케어, 시니어교육, 융복합
- E-Mail : elpis1234@empal.com

### 임 왕 규(Lim, Wang Kyu)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 E-Mail : wklim@hoseo.edu